

### 인천 청교련 '청소년쉼터'

# 개원 두달... 휴관 위기

## 예산지원 미뤄... 위탁운영 자율권 억제

대한불교청교련연합회 인천지부(자부장 선일스님) 청소년쉼터가 인천시(시장 최기선)의 능력행정과 현실성 없는 규정이 행 강요로 휴관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청소년쉼터는 9명의 기술 청소년 부식비와 지도 교사 월급, 기타 운영비를 더 이

상 마련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원 두달이 지나도록 인천시가 지원예산으로 책정한 1억원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채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악화됐다. 더구나 인천시는 상의없이 실장과 지도교사를 채용했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청교련 인천지부장 선일스님은 "인천시 담당공무원이 외상으로라도 미리 기본 물품들을 들여 놓으라고 해 그 말을 믿고 들여온 사무용품의 값을 치르지 못해 업자들로부터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인천시의 어처구니없는 능력행정을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준수의무사

행인 인천시의 직원채용기준으로 실장과 지도교사를 구하기 힘든 형편"이라며 규정상의 모순을 지적했다. 인천시 규정에 따르면 자격기준과 보수는 실장의 경우 청소년육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40세이상 50세미만에 급여는 상여금이 월 78만원. 지

도교사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이상 경력에 월급은 상여금이 72만원. 이같은 규정은 서울 부산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쉼터와 비교해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부산쉼터의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직원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보수와 대우는 더높고 자격조건은 완화돼 융통성과 자율성의 폭이 넓다. 현재 인천쉼터는 4명의 지도교사 중 2명이 퇴직했고 기술청소년들도 더 이상 받지 못해 단 한명만 있다. 한편 인천시는 청소년쉼터 운영이 5월 현재까지 시의 요구대로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 당초 지원비 1억원을 사전통보없이 3천만원 삭감하는 등 쉼터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인천시의 경직된 탁상행정은 청소년선도에 앞장서는 청교련 인천지부의 사기를 꺾어 놓았을 뿐 아니라 기술청소년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필선 기자>

### 뉴스 & 뉴스

#### 경승·포교사 연수 잇따라

조계종포교원(위원장 성타)은 경승연수회와 포교사연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경승연수는 20~21일 경기도화성 신홍사에서 개최된다. '지역공동사업방안' '지역경승 친목도모 방안' 주제와 분과토론, 경승활동 모범사례 발표(서울 상동경승서 성덕스님), 경찰조직과 행정업무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반기 포교사 연수는 서울 부산 대구지역은 22일 종로구청강당과 범어사 동화사에서, 대전 광주 전주지역은 29일 화양불교대학과 호남불교대학 대전불교대학에서 각각 열린다.

#### 종교인협 북돋기 국토순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는 4일부터 10일까지 '북녘동포돕기 국토순례' 행사를 개최했다. 효림스님(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장)과 각 종교대표 10여명이 참가한 순례단은 4일 제주도에서 출발, 부산·대구·광주 등을 순례하고 10일 서울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각 도 각지에서 종교인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북녘동포돕기 바자회, 모금운동 등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15일 모자세대가족 आयुषी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15일 설악산 한화리조트내 프라자랜드에서 모자세대 60~70 가족을 초청하여 आयुषी를 개최한다. 결혼자정으로 야기되는 상황을 극복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날 행사는 모자세대가족 사진찍기, 즐거운가족 장기자랑, 사랑의 편지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28일~29일 구룡사에서 제1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 전법도량 축소지정키로

### 조계종 당초 10곳서 2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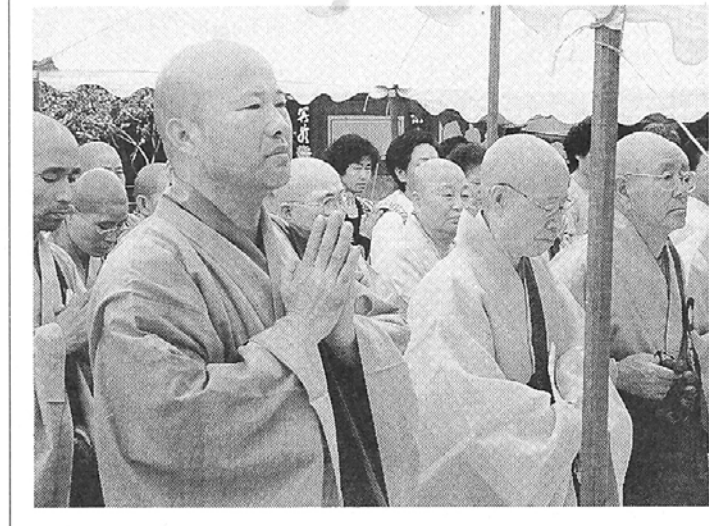
조계종이 올해를 전법의 해로 선포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전법도량 지정이 예산부족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법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 총무원장)는 최근 전법도량을 시범사찰 1곳, 거점사찰 1곳 등 두 곳만 지정키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당초 시범 5곳, 거점 5곳 등 모두 10개 사찰을 전법도량으로 지정키로 하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신부사 직역사찰 해제는란이 일며 예산마련이 어려워 축소해 추진키로 했다.

## 복건부 낙태허용 검토 고계 "생명존엄 위배"

보건복지부는 4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인 허용범위를 현행 '결혼한 여자'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의 개

조계종은 전법의 해 사업계획을 지난 1월 확정, 지난해 11월 열렸던 정기총회에 예산을 상정하지 못해 전법의 해 관련사업 예산을 신부사 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했었다. 이에 따라 전법도량 지정과 함께 전법의 해 사업으로 계획했던 10개 사업 가운데 △문화재사찰 안내프로그램 실시 △전국 불교지도자대회 △포교대상 강화 등은 예산마련의 어려움으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허용범위가 현행보다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이 임신하거나 산모가 사회·경제적으로 임신상태를 지속하기 힘들 경우 임신중절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수태의 순간부터 생명의 존엄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생명문제를 인간이 법제도로 속단해서도 안되며, 낙태는 살생문재인 만큼 사회윤리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호국영령 추모

국가를 위해 산화한 충훈들이 이 땅에 다시 빛으로 회향하기를 바라는 호국영령추모법회가 은평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삼천사 주지) 주최로 4일 진관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주필 기자>

## 전·노씨 사면서명 '확산'

### 조계사·총화종등 청와대에 청원서

지난 5월초 백담사(주지 마근)와 동화사(주지 무공)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된데 이어 최근 조계사 신행단체와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5월말 중앙승가대 학생회가 전개한 서명운동이 학인스님들의 반대로 1달만에 중단된 가운데 시작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사신도회 관음회 대승불자회 청년회 원심회 불교대학총동문회 등 조계사 산하 11개 신행단체들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사면 서명운동 운동본부'(본부장 김채식 신도회 수석부회장)를 발족시키고 5월27일 청와대에 '김영삼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이 청원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종교에 귀의해 지난날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

을 통합하고 참회하여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만큼, 나머지 삶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화종도 지난달 말부터 전국 9백여 종단사찰별로 서명운동을 전개, 탄원인 서명명부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1달간 서명운동을 전개한 백담사와 오세암(주지 흥천)은 5일현재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동화사는 5백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지난달 14일 서명운동을 중단했다. 한편 해인사 입구에서는 1일부터 합천 지역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채식 서명운동본부장은 "인간방생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명운동을 순수하게 봐달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반들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 3군수지원사 법당 삼마사 기공

인천 3군수지원사령부 법당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연세)는 8일 오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 인천 보각사 주지 송산,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과 부대관계자,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내 삼마사에서 법당기공법회를 봉행했다. 부대장병의 종교적 정서함양을 통한 정신교육장으로 활용될 삼

## 광홍사 금사경 제자리로

### 문화재털이범 잡아

지난해 9월 문화재 전문털이범에 의해 도난당해 1억3천여만원에 팔렸던 고려시대의 금사경이 원래의 자리인 안동 광홍사(주지 일현)로 5월23일 돌아왔다. 표지에 범망금강보문합부(梵網金剛普門合部)라고 써져 있는 이 사경은 50쪽을 양면으로 접은 책자형태로 이를 모두 펼치면 7m가 넘는다. 범망 금강 보문경을

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한편, 이 사경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하종택(41세), 하중구(35세)씨는 경북 주요사찰을 돌며 수습차례에 걸쳐 고서거점과 평화, 화집 등을 전문적으로 털어왔으며, 지난2월 경주 기림사 복장유물과 94년 4월 포항시 남구 오어사 탕화 및 경관 도난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 목탁 소제 천미회

대불청과 범어사청년회의 9개지회가 가입된 조계종청년회는 저마다 조직의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던 대한 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와 광복청의 두 불교청년단체는 결국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기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면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자발적으로 혹은 여가에 밀려 가진 수차례의 통합의 의는 방법에서 양측 회장단의 총연합회(회장 문상구)의 산하조직이 주축이된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회장 김홍기)가 29일 범어사에서 공식창립 활동을 시작한다. 4년여의 갈등구조 속에서 끊임없이